

데스크시각

최재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취임 25년째를 맞아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화두로 내세웠다. 이와함께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이 회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는 그의 직함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삼성전자 회장 외에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직함만을 갖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경영계의 화두는 사회 속의 지속가능 경영이다.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은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관계망을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 할 수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지역기여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게는 이같은 경영계의 화두가 다른 나라 이야기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광주·전남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SSM의 최근 3년간 수익은 약 3조 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 기업이 지역 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액수는 60억 원에 그쳐 지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조사한 ‘광주·전남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

이 50%에 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극명한 비교를 이뤘다.

고용부문에 있어서도 대형마트의 평균 인력은 500~600명인데 비해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합쳐야 3879명에 불과했다. 한 지점당 78명인 셈이다. 이 중 50%가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그들이 수치상 더

많은 주장은 한참 거리가 있다.

특히 롯데는 지난해 광주에서 광주시 1년 예산(3조5000억 원)의 30%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 돈이 모두 본사로 올라가 지역 내 소비 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는 지극히 낮았다. 지역사회 환원에도 인색해 ‘폐가기만 하는’ 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업의 말 뿐인 사회공헌

비난 여론이 팽배해 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국제 CSR 전략포럼’에서 사회가치 영향평가 컨설팅사인 미션메저먼트의 대표이자 ‘CSR 3.0’의 저자인 제이스 사울은 “이제 기업들은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은 단순 자선활동(CSR1.0), 전략적 자선 활동 수준(CSR2.0)을 넘어 ‘사회적 혁신(CSR 3.0)’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선활동 수준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

에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에 사회공헌이란 자소특징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의 교육 또는 후원 등 경제적 요소만이 아닌 대내외적으로 의미있고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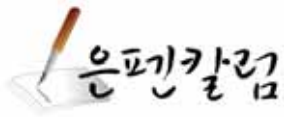
지역과 상생 역할 충실해야

광주·전남의 대형마트와 SSM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연말연시와 명절 등 특정한 날에 불우이웃돕기 몇 번을 하고서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을 했다고 자위하는 건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른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혜 차원이 아닌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는 적극적 자세가 요망되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 표준화, 짧아진 상품주기 등 고객의 로열티 유지는 쉽지 않은 시대다.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기업의 이미지가 구매결정에 중요한 판단이 되고 있다. 윤리적이고 정직한지 혹은 개인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지 여부가 기업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이윤 창출의 목적을 넘어 진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생하는 역할에 충실할 때 기업이 얻는 긍정적 효과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장〉lion@kwangju.co.kr



송민석

지난 4월부터 탈북 여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매사에 적극적인 40대 초반의 그녀는 북쪽 이야기만 나오면 눈가가 붉어진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은 더욱 편지 않는 표정이다. 북에 두고 온 자식을 때문이라라. 지난여름 통일현장체험 때 제3방굴 옆 도라전망대에 올라 개성공단을 바라보며 개성에서 조금만 더 가면 고향이라면서 “집성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울먹이던 그녀다.

현재 남함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2만 5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0%가 여성이고, 대부분이 젊은 세대들이다. 그 중 광주·전남 거주자는 1000여 명으로 여수와 순천에 2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기고



배양자

얼마 전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장성군 홍길동 체육관에서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열렸다. 채용과 창업 부스에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를 찾아 북부권 6개 시군에서 온 1000여명의 여성들로 가득했다.

전업주부인 한 여성은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왔으며 조금은 머쓱해 하였다. 세 번째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여수의 A씨는 2002년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경력단절기간이 11년이 되었는데, 박람회를 통해 6개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편집 디자인

이너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전남도에서는 올해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눠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1회씩 시 지역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개최한 것이다.

네 번의 박람회에 855개 구인업체가 참여했는데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면접을 했던 직접 구인업체는 111개였고, 채용게시판에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사후면접을 했던 간접 구인업체는 744개였다. 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사람은 2010년 321명, 2011년 354명이었고 올해는 3차 박람회까지 벌써 552명을 달성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성장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없

는 성장’이 확대되고 노동규제 완화나 시장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산자유주의에 대한 신화도 깨지면서 고용을 시장에만 맡기는 쪽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향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 후에는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2011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스웨덴 87.0%, 미국 68.4% 등 OECD 평균 61.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경

집이 70% 넘게 문을 닫은 것이다.

그렇다면 동네 빵집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동네 빵집이 문을 닫게 된 주요 원인은 대기업 체인점인 유명 제과점들이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 체인 빵집은 지금 전국에 44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동네 빵집 숫자와 맞먹는다.

이 대기업 점포가 하나 들어설 때마다 동네 제과점 두세 곳이 문을 닫았고 동네 빵집들은 몇 년 새 원료 값, 임대료, 인건비가 뛰어들었다 상포 경쟁에서도 밀려 대기업 체인점으로 간판을 바꿔달지 않으면 버틸

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이외에도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남새일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5개 시군(목포·여수·순천·광양·장성)에 새일여성인턴 연계·취업설계사 운영,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전남 새일지원본부를 통해 새일센터가 없는 17개 시군에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목포·여수·순천)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22개 시군에도 여성 취업·창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신세계 같은 재벌 3세 딸들까지 너도나도 빵집 사업을 한다며 난리를 치고 있다. 이래로 가면 이런 동네 빵집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다. 솔직히 제과점은 재벌가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일정한 기술만 익히면 큰 자본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제과업이 사실상 절박한 생계 수단이다.

재벌들이 재벌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사업에는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좌혜경·광주시 동구 산수2동

시설

전력대란 우려 속 전기절약 생활화해야

지난해 9월 사상 초유의 정전대란을 겪은 지 1년이 갓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정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올 겨울 한파가 어느 때 보다 심할 것이라는 예보에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영광원전 3·5·6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전력 사용이 급증할 경우 최악의 정전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3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에 들어가 내년 2월22일까지 이를 시행기로 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팀이 이날 광주시 내 일원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적정온도를 유지한 반면 업소들은 상당수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기를 켜는 등 참여가 저조했다.

실제로 동구청 등 공공기관은 다소 썰렁함이 느껴질 정도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준수했다고 한다. 18도 이하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기를 오전에만 잠시 가동한 것이다.

그러나 총장로 일대 상가들은 대부분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 중이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모든 매장과 점포, 사무실 등지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참여 업소는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계도에 나선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또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올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181개 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환 것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방증해주고 있다.

결국 정전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수요, 그 중에서도 전기난방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각 직장상사, 호텔 등에서 난방이 없도록 절전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 역시 단기가 아닌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런 노력만이 국가적 재앙인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비 수백억 횡령해 ‘학교 장사’ 하더니

재단 산하 대학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해 문어발식으로 대학을 설립해온 광양 A보건대 이모 이사장(73)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있는 전국 5개 대학에서 교비를 가로채 학교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에서 돈을 빼내 다시 대학을 설립하는 ‘학교 장사’를 한 셈이다.

교사 출신으로 1981년 광주 모 여상을 설립한 이씨는 30여 년간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 등지에 4년제 대학 2곳, 2년제 대학 4곳, 고등학교 3곳, 병원 2곳 등 12곳을 설립하거나 인수했다고 한다. 이씨는 특히 1997년 학생들의 등록금 426억 원을 횡령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씨는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사장을 친인척으로 임명해 학교 운영의 모든 부분을 장악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백억 원을 십사리 뻔뻔수 있던 것도 이사장의 전횡과 즉결체제였

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문어발식 학교 설립과 부실 운영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광양 모 대학 교원보육율은 26%에 지나지 않고, 나주에 있는 또 다른 대학은 교직원 인건비를 50%밖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 소유의 전남지역 2개 대학은 현재 학생 모집이 정지된 상태다.

사학재단이 이렇게 수십년 동안 썩어있었는데도 교과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감사를 했거나, 학교 인가 과정에서 유심히 살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직무유기나 다름 바 없는 일이다.

교과부는 즉결체제 금지 등 사학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 학생 피해와 학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부실대학 퇴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이씨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벌여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대 그리스의 위대함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의 역작으로, 페르시아전쟁의 전말을 다룬 책 ‘역사(Historiae)’에는 부패한 재판관에 대한 참혹한 처벌의 기록이 남아 있다.

기원 전 6세기 고대 페르시아의 전제군주 캄비세스(Cambyses)와 당시 왕실 재판소의 관관이었던 시삼네스(Sisamnes)가 그 주인공이다. ‘역사’에 따르면, 캄비세스 왕은

이용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489년 네덜란드의 화가 제라르 다비드(Gerard David)가 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다. ‘역사’에 쓰여진 것과는 달리 산채로 가족을 버기는 것으로 묘사된 이 그림은 네덜란드 브뤼헤 시 청사의 ‘정의의 홀’ 벽에 걸려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경고했다. 영국의 극작가 토마스 프레스턴도

캄비세스의 재판



왕은 부패한 판관의 먹을 따고 살가죽을 모두 벗기게 했으며, 벗겨낸 살가죽으로 끈을 만들어 시삼네스가 판결할 때 앉았던 의자를 둘러싸게 했다. 왕은 이어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를 후임 판관으로 임명, 아버지의 의자에 앉게 한 뒤 ‘어떤 의자에 앉아 판결하고 있는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극악한 이 일화는 후세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수많은 그림과 조형물 그리고 문학의 소재로

1569년 발표된 ‘캄비세스의 일생’이라는 연극에서 ‘서민들은 비열한 재판관 시삼네스에게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중략) 그의 부주의한 행동과 탐욕은 서민을 몰렸으며, 힘없는 어린이와 미망인 그리고 고아들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갔다’고 썼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타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자·판·검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잔뜩 매서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삼네스의 처참한 최후에 열광하는 국민의 심경을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경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팀 2200-697	디 자 인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571	기 획 사업 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